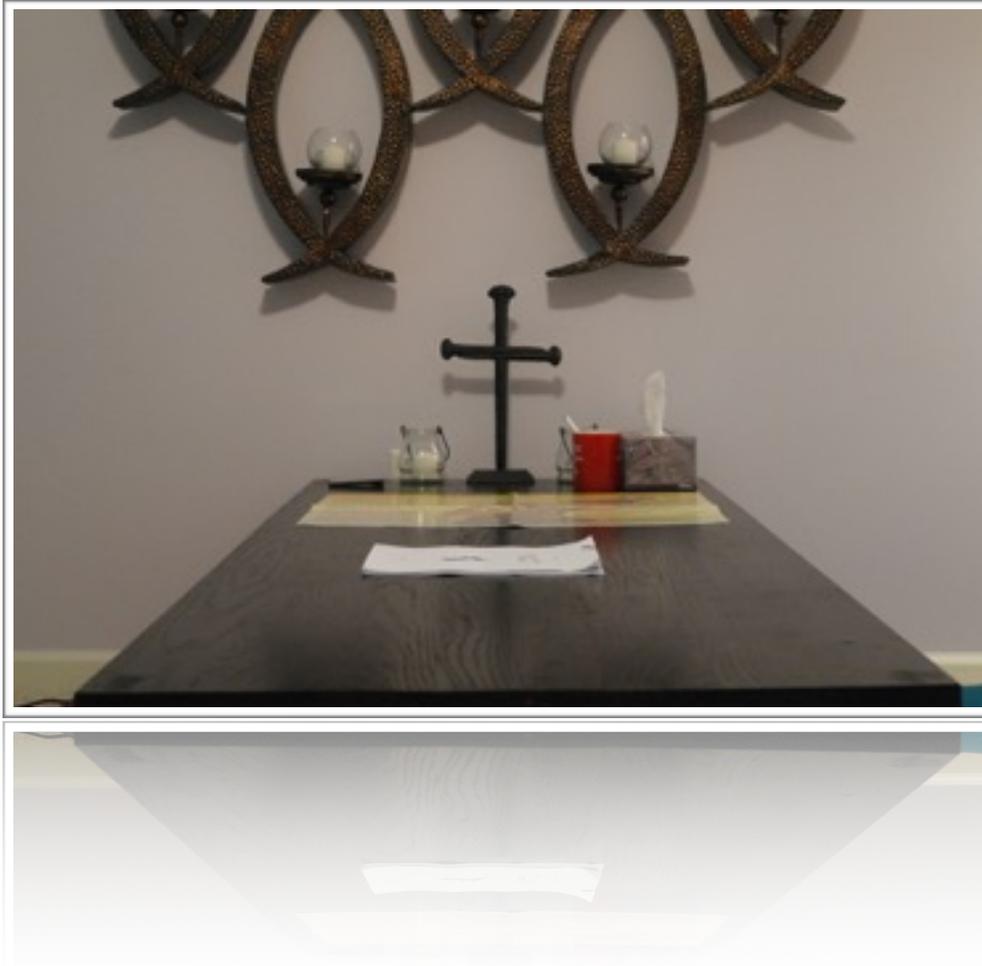


THANK YOU ANMC

J 선교사 (남 아시아)



10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은 감사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함 이니라”. 정말이지 선교지가 아니라면 주님을 더 깊이 알지도 더 깊이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10년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신 주님, 그리고 동행하신 주님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청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현지인 사역자의 배신(고아원 사역), 현지의 덥고 열악한 환경과 토착병(뎡기열)과 설사, 그리고 홍수로 인한 침수(죽을뻔한 사건)과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무슬림 영혼 전도의 어려움

이 편지는 2016년 9-10월 뉴스레터에 요약본이 실린 J 선교사의 편지 전문입니다.

으로 인한 사역의 실패자인 것 같은 마음이다.

선교사로서 어찌면 나는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옷을 벗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선교사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지치고 지친 마음으로 안식년 2개월 전에 엄마의 뇌경색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로 급하게 한국에 돌아왔다.

10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효도하지 못한 마음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조금 빠른 입국을 하게 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은 엄마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피신처를 주셨다. 2000 선교와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추천으로 안식년 목회자-선교사 돌봄 프로그램의 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하며 렉싱턴으로의 한걸음을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함 이니라"

ANMC 센터인 베다니홈은 선교에 목숨을 건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선교지-사역지에서 전환기를 맞이할 때, 심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사역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영원한 처소를 잠시 맛보면서 지낼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로서 마련된 곳인데, 나에게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고 다시한번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신 귀한 장소이다.

위로와 회복 뿐 아니라, 재충전과 재도전으로 나의 심장이 다시금 뛰게 만드신다.

몽골, 위구르, 일본, 중국, 터키, 필리핀, 요르단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은 정말이지 동지를 만난 듯한 동감을 할수 있고, 공감을 할수 있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겨주시는 최현 목사님과 이(최)미생 교수님의 헌신적인 섬김과 두 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

그리고 귀한 강의와 작은 음악회. 야외 오페라 공연, 그리고 링컨 박물관의 견학과 수도원 견학,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건강관리 강의 및 건강 치료의 시간, 예배, 기도(중보기도실) 그리고 산책 등등 3주간의 시간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나에게 가장 베다니홈에서의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다시한번 주님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사로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딸의 정체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상처와 아픔을 가져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든 것이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심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하는데, 용서하지 못했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됩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걸어온 이길을 계속해서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하며, 나의 구
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하리라"**

아직도 내 눈과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이미지는 반딧불이다.

반딧불!!!

반딧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암컷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불빛을 발하고 수컷은 짝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그 신비한 불빛에서 어릴적 동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반딧불과 눈으로 열심히 공부한 차윤과 손강이 결과와 보람을 찾는 “형설지공”의 고사를 떠오르게 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깨끗한 이슬을 먹고 생활하는 “깨끗함”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난 나에게는 렉싱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곳에 반딧불이 반짝 반짝이며 빛을 발하는 것이 마치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깜깜하고 어두운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빛을 발하며, 작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사랑이 선교지 가운데서 반짝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거대한 빛이 아니었다. 작지만 진실된 사랑의 구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빛으로 발산되어지길 소원해본다.

사랑의 등불인 반딧불 같은 인생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